

제 1 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입니다. 이렇게 진로 축제에 초청받아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소개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원래 인쇄술을 뜻했지만 지금은 그 영역이 확대되어 문자로 구성하는 디자인 전반을 가리킵니다. 타이포그래피에는 언어적 기능과 조형적 기능이 있는데요, 그 각각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은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는 기능을 말합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독성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화면의 ‘작품 1’을 가리키며) 이것은 여러분들도 흔히 보셨을 텐데요, 학교 앞 도로의 바닥에 적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자입니다. 운전자에게 주의하며 운전하라는 의미를 전달해야 하므로 이런 글자는 무엇보다도 가독성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글자들은 전체적으로 크면서도 세로로 길게 디자인하여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글자가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입니다.

이어서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이란 글자를 재료로 삼아 구체적인 형태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화면의 ‘작품 2’를 가리키며) 이 작품은 ‘등’이라는 글씨의 받침 글자 ‘ㅇ’을 전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받침 글자를 중심으로 양쪽에 사선을 그려 넣고 사선의 위쪽을 검은색으로 처리했어요. 이렇게 하니 마치 갓이 씌워져 있는 전등에서 나온 빛이 아래쪽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지요. 이렇게 회화적 이미지를 첨가하면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까지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작품 3’을 가리키며) 이 작품은 ‘으’라는 글자 위아래를 뒤집어 나란히 두 개를 나열했어요. 그러니까 꼭 사람의 눈과 눈썹을 연상시키네요. 그리고 ‘ㅇ’ 안에 작은 동그라미를 세 개씩 그려 넣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글자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글자의 형태만을 활용하여 제작자의 신선한 발상을 전달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품들을 하나씩 보여 드리며 타이포그래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면에 ‘작품 1’, ‘작품 2’, ‘작품 3’을 한꺼번에 띄워 놓고) ㉠ 줌 전에 본 작품들은 타이포그래피의 어떤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일까요?

1.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직접 제시하여 강연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② 청중이 강연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③ 청중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면서 강연의 중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청중이 희망하는 직업들의 특징을 서로 대비함으로써 강연 내용의 활용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청중이 던진 질문에 답변을 함으로써 강연 내용에 대한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2. 위 강연을 고려할 때, ㉠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1’은 운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를 제작하였으므로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 ② ‘작품 2’는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와 상관없이 글자를 작품의 재료로만 활용하고 있으므로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 ③ ‘작품 3’은 회화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글자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표현했으므로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 ④ ‘작품 1’과 ‘작품 2’는 모두 글자의 색을 화려하게 사용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 ⑤ ‘작품 2’와 ‘작품 3’은 모두 글자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통해 글자의 의미 전달을 돕고 있으므로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3~5] 다음은 학생들 간의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1 : 이번 모둠 과제를 하려면 먼저 『○○의 이해』를 같이 읽어야 하잖아. 내용이 많고 어려워 보이는데 시간도 많지 않아서 걱정이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자. 일단 사회는 내가 볼게.

학생 2 : 매주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고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의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 좋겠어. 그러면 발표자는 자신이 맡은 부분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학생 3 : 그럴 경우 발표자 외의 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하는 책임감이 덜할 수도 있어. 그래서 말인데, 자유 토의 방식은 어떨까? 구성원들 모두가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을 충분히 잘 읽어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학생 1 : ㉠ 발표와 질의응답, ㉡ 자유 토의라는 두 가지 방안이 나왔네. 그럼 어느 방안이 좋을지 말해 보자.

학생 4 :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하면 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친구들이 우리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 주니까 이해도 쉬울 거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부담 없이 질문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

학생 5 : 그런데 발표자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나머지 모두가 오해를 할 위험이 있어. 자유 토의 방식은 모두가 책을 꼼꼼히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니까 책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A]

학생 2 :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을 꼼꼼하게 다 읽어 와야 하는 것은 솔직히 부담이 돼.

학생 3 : 나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책을 꼼꼼히 읽고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학생 4 : 하지만 자유 토의 방식은 중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따로 정하지 않아서 토의가 활발히 진행되기가 쉽지 않아. 이에 반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은 발표자가 그 역할을 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어.

학생 2 : 그리고 자유 토의 방식으로 할 경우, 책을 안 읽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돼. 책을 읽고 온 사람들은 활발히 참여하겠지만 안 읽고 온 사람은 소외될 수도 있어. 그러다 한두 명씩 빠지다 보면 모임이 어려워질 거야.

학생 3 : 그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도 마찬가지야. 발표자가 준비를 제대로 해 오지 않으면 모임을 할 수가 없잖아. [B]

학생 4 : 하지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발표자에게 오히려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지.

학생 1 :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을지 결정해 볼까?

학생 3 : 음, 생각해 보니까 자유 토의 방식은 준비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다들 책 내용 모두를 이해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책을 꼼꼼하게 다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 안 그래?

학생 5 : 그러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이 좋겠다는 거지?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다들 책 읽기 모임을 처음 하는 상황이라 토의를 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을 거고.

학생 1 : 그러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해 보는 게 어때? 문제점도 나타나겠지만, 그것들은 차츰 개선해 나가 보도록 하자. 모두 동의하지? [C]

학생들 : (모두 동의를 표한다.)

3. 위 토의의 맥락을 고려할 때,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모임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특정인이 사전에 결정된다.
- ② ㉡은 준비 과정에서 각 참여자의 역할이 같다.
- ③ ㉠과 ㉡ 모두에서는 참여자들이 의견을 상호 교환한다.
- ④ ㉠과 ㉡ 모두에서는 매주 모임에서 참여자들이 다룰 분량이 정해져 있다.
- ⑤ ㉠은 참여자들이 사전에 모여서 책을 함께 읽는 방식이고, ㉡은 책을 각자 읽는 방식이다.

4.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특정 방안의 단점을 언급한 후 다른 방안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A]에서는 특정 방안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언급한 후 다른 방안이 지닌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특정 방안의 장점을 인정한 후 다른 방안이 그 장점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④ [B]에서는 특정 방안의 한계를 언급한 후 그 방안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 ⑤ [B]에서는 특정 방안의 장단점을 언급한 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5. 위 토의의 흐름으로 볼 때, [C]의 의의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3점]

- ① 토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결정하였다.
- ② 예상되는 문제점의 보완을 전제로 특정 방안을 실행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 ③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제삼의 방안을 절충안으로 결정하였다.
- ④ 소수 의견 존중을 전제로 특정 방안을 유연하게 실행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 ⑤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특정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6~7] (가)는 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나)는 동생이 누나와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기소개서 작성 계획을 구상한 메모

- 작문 상황: ○○ 향토 문화원 학생 해설 도우미에 지원
- 목적: 선발 담당자에게 나를 알림. .... ㉠
- 예상 독자 분석: 학생 해설 도우미 선발 담당자는 나의 학교생활이 궁금할 것임. .... ㉡
- 내용 생성
  -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활동 경험 ..... ㉢
  - 나의 성장 배경 ..... ㉣
- 조직 방법: 경험의 목록을 나열하여 제시함. .... ㉤

(나) 자기소개서 작성 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대화

동생: ○○ 향토 문화원에서 우리 지역의 향토 문화를 설명해 줄 학생 해설 도우미를 모집한대. 관심 있는 분야라 지원하고 싶어서 자기소개서 작성 계획을 구상해 보았는데 잘 안 돼. 이 메모를 좀 봐 줘.

누나: (메모를 확인한 후) 음, 단순히 자기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목적으로서 좀 부족한 것 같아. 네가 해설 도우미 선발 담당자라면 어떤 점이 궁금할 것 같아? 단순히 학교생활을 궁금해할까?

동생: 해설 도우미를 선발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아, 내가 해설 도우미로 적합한지가 궁금하겠지.

누나: 그럼 해설 도우미로 적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공고문의 내용을 잘 고려해 봐.

동생: 공고문에 따르면 고등학생을 해설 도우미로 선발해서 초등학생에게 지역의 향토 문화를 설명해 주는 활동을 하게 한대.

누나: 향토 문화를 해설하려면 향토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정도, 설명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설 대상인 초등학생과의 친화력도 중요할 거야. 이런 점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동생: 음, 그러면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 보고서 발표 대회 참가 경험,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 학생회 봉사 부장 활동, 나의 성장 배경을 쓰면 좋겠는데.

누나: 그것들을 모두 쓰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활용하면 좋을 거야.

동생: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지역의 문화재를 탐방했던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청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보고서 발표 대회, 초등학생을 돌보았던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을 쓰면 되겠네. 그럼, 선택한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면 좋을까?

누나: 단순히 너의 경험들을 나열하기보다는 경험의 의미를 경험 내용과 연관 지어 조직하면 글의 의도가 잘 전달될 거야. 그리고 글 전체를 처음, 중간, 끝 부분으로 나누고 [중간 부분]에서 경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쓰면 좋겠어.

동생: 고마워 누나. 이제 잘 써 볼게.

6. (나)를 고려할 때, (가)의 ㉠~㉤에 대한 조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선발 담당자에게 자신이 학생 해설 도우미로 적합함을 보이는 것으로 목적을 구체화한다.
- ② ㉡: 공고문을 토대로 예상 독자의 주된 관심사를 학생 해설 도우미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로 재설정한다.
- ③ ㉢: '의미 있는 활동' 중 학생 해설 도우미로서의 자질을 보여 줄 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 ④ ㉣: 자신의 친화력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로 성장 배경 대신 학급 내의 교우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 ⑤ ㉤: 선별된 각 경험의 내용과 그 의의를 함께 제시한다.

7. (나)를 고려하여 [중간 부분]을 작성하려 할 때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경험	내용 구체화 방안
①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음을 서술한다.
②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	동아리에서 지역 문화재를 탐방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의 향토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서술한다.
③ 보고서 발표 대회 참가	보고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기른 설명 능력이 우리 지역의 문화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질 것임을 서술한다.
④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	복지 센터 보조 교사로서 초등학생을 돌보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초등학생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음을 서술한다.
⑤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	보조 교사 활동을 학업과 병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호소함으로써 문화 해설 도우미 활동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을 서술한다.



[8~10] 다음은 기사 요청서와 그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기사의 본문 개요 및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학교 신문 편집부의 기사 요청서

우리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인 소나무들이 옮겨져 미리내 솔숲이 조성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의의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특집 기사를 작성해 주세요. 예상 독자는 본교 학생들입니다.

○ 본문의 개요

- 1문단: 미리내 솔숲 개방 행사 안내 .....㉠  
 2문단: 체육관 신축으로 인한 소나무 처리 문제 발생 .....㉡  
 3문단: 소나무 처리 문제에 대한 학생들과 동문들의 우려 .....㉢  
 4문단: 소나무 기증을 통한 소나무 처리 문제의 해결 .....㉣  
 5문단: 기증한 소나무들로 솔숲을 조성하게 된 계기 .....㉤  
 6문단: 소나무 기증의 의의와 솔숲에 거는 기대

○ 기사 초고

우리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 시민의 솔숲으로 부활

<부제>

<전문>

우리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인 소나무의 기증으로 조성된 미리내 솔숲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다.

<본문>

우리 학교 이름을 딴 미리내 솔숲의 개방을 축하하는 행사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솔숲이 위치한 시민 공원에서 열린다. 솔숲 개방 행사에는 우리 학교 상징물인 소나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재학생과 동문 선배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 참석하였다.

우리 학교와 역사를 함께해 온 소나무들로 솔숲이 조성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해 3월, 우리 학교에서는 실내 체육 활동을 위해 체육관을 ㉡ 새로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체육관을 지을 터에 이미 자리 잡은 소나무들을 옮길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베어 버려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학생회와 동문회에서는 소나무들을 베어 버리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학교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소나무를 당장 베어 버리기보다는 몇 달만이라도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학교 측과 ㉢ 합의했다.

학생회에서는 여러 대안을 모색하던 중 시민 공원에 소나무를 기증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비단 시민 공원에서조차 솔숲을 조성할 소나무가 필요하다는 소나무 기증 의사를 반겼고, 솔숲의 터가 정리되는 대로 솔숲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우리 학교는 구성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9월 소나무들을 시민 공원에 기증하였다.

현재 우리 학교 소나무들은 새 보금자리인 시민 공원에서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소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소나무들은 학교에 있을 때처럼 건강하게 새 터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 공원에서는 예정보다 빨리 솔숲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우리 학교 이름을 딴 미리내 솔숲의 조성은 교내의 소나무 처리 문제가 지역 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슬기롭게 ㉤ 해결되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회장은 “학생들은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인 소나무들과 이별하는 것을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 기증을 통해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인 ‘나눔’과 ‘협력’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게 되었고 이번 기증으로 시민들의 쉼터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 학교의 상징물인 소나무들이 지역 사회의 상징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8. 개요의 ㉠~㉤ 중, <본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보기>는 글쓰기 과정에서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이에 따라 작성했을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기사 내용 중 학생회장의 말을 바탕으로 예상 독자에게 소나무 기증의 의의가 잘 전달되도록 <부제>를 정해야겠어.

- ① 우리 학교 소나무들로 조성된 미리내 솔숲,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에 개방  
 ② 지역 사회에 쉼터 제공, 소나무 기증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나눔과 협력의 정신 일깨워  
 ③ 미리내 솔숲, 공공 녹지 조성과 나무 생태 보전이라는 시민 공원의 설립 취지 잘 살려  
 ④ 우리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 지역 주민들에게 나무 기증의 중요성 알리는 계기로 작용  
 ⑤ 지역 사회와의 협력의 산물, 우리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이 지역 사회의 상징물이 되기까지

10. 기사 초고의 ㉠~㉤에 대한 점검 결과와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검 결과	수정 방안
①	㉠: 행위의 시간 표현이 잘못되었다.	→ ‘참석할 예정이다’로 수정한다.
②	㉡: 의미상 불필요한 표현이다.	→ 의미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한다.
③	㉢: 문장에서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 있지 않다.	→ ‘시민 공원은’을 주어로 추가한다.
④	㉣: 부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다.	→ ‘때마침’으로 수정한다.
⑤	㉤: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있다.	→ ‘해결되었다는’으로 수정한다.

[11~12] 다음은 용언의 활용에 관한 탐구 활동과 자료이다.  
 <대화 1>과 <대화 2>는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 <자료>는 학생들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 1>

A: ‘(길이) 좁다’와 ‘(이웃을) 돕다’는 어간의 끝이 ‘ㅅ’으로 같잖아? 그런데 ‘좁다’는 ‘좁고’, ‘좁아’로 활용하고 ‘돕다’는 ‘돕고’, ‘도와’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B: 그러고 보니 ‘(신을) 벗다’와 ‘(노를) 젓다’도 어간의 끝이 ‘ㅅ’으로 같은데, ‘벗다’는 ‘벗어’로 활용하고 ‘젓다’는 ‘저어’로 활용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A: 그렇구나. 어간의 끝이 같은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활용하는 걸까? 우리 한번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알아볼래?

<자료>

현대 국어 ‘좁다’와 ‘돕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좁다’는 ‘좁고’, ‘조바’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처럼 어간이 ‘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바’처럼 어간이 ‘도-’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현대 국어 ‘벗다’와 ‘젓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벗다’는 ‘벗고’, ‘버서’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젓고’처럼 어간이 ‘젓-’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서’처럼 어간이 ‘젓-’으로 나타난다.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소리가 올 수 있었기에 ‘돕고’의 ‘ㅅ’과 ‘젓고’의 ‘ㅅ’은 각각 ‘ㅃ’이 ‘ㅅ’으로 교체되고 ‘ㅅ’이 ‘ㅅ’으로 교체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도바’와 ‘저서’는 ‘ㅃ’과 ‘ㅅ’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ㅃ’, ‘ㅅ’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먼저 ‘ㅃ’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바’>‘도와’, ‘더버’>‘더워’에서와 같이 ‘ㅃ’ 또는 ‘ㅅ’ 앞에서는 반모음 ‘ㅛ/ㅟ[w]’로 바뀌었고, ‘도보시니’>‘도오시니’, ‘셔볼’>‘셔울’에서와 같이 ‘ㅛ’ 또는 ‘ㅟ’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ㅛ’ 또는 ‘ㅟ’로 바뀌었으나,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ㅅ’은 16세기 중엽에 ‘아스’>‘아으’, ‘저서’>‘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를 겪은 말 중에 ‘셔울’, ‘도오시니’, ‘아으’는 18~19세기를 거쳐 ‘셔울’, ‘도우시니’, ‘아우’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대화 2>

A: 자료를 보니 ‘ㅃ’, ‘ㅅ’이 사라지면서 ‘도바’가 ‘도와’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네.

B: 그럼 ‘(고기를) 굽다’가 ‘구워’로 활용하고, ‘(밥을) 짓다’가 ‘지어’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거겠네!

A: 맞아.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굽다’하고 ‘짓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게 된 거야.

11.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도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 ② 15세기 국어의 ‘도바’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ㅃ’이 어간 끝에서 ‘ㅅ’으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ㅅ’의 소실로 어간의 끝 ‘ㅅ’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돕고’와 현대 국어의 ‘돕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 ⑤ 15세기 국어의 ‘젓고’와 현대 국어의 ‘젓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12.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따라,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		
		-게	-아/-어	-은/-은	-게	-아/-어	-은/-은
①	(마음) 굽다	굽게	고바	고븐	굽게	고와	고온
②	(선) 굽다	긋게	그서	그슨	긋게	그서	그슨
③	(자리) 눕다	눅게	누버	누븐	눅게	누워	누은
④	(머리) 빚다	빋게	비서	비슨	빋게	비서	비슨
⑤	(손) 잡다	잡게	자바	자븐	잡게	자바	자븐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맑+네 → [망네]
㉡	낮+일 → [난닐]
㉢	꽃+말 → [꼇말]
㉣	글+고 → [글꼬]

- ① ㉠: ‘값+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 ㉢: ‘입+니 → [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 ‘물+약 → [물랏]’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 ㉢: ‘팔+죽 → [판죽]’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 ‘읽+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1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다)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고 [A]~[C]는 안긴 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보면 (가)의 ‘동생’, (나)의 ‘책’, (다)의 ‘도서관’은 완결된 문장 [A], [B], [C]에서 뒤에 붙는 조사와 함께 각각 ㉠ 주어, ㉡ 목적어, ㉢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가) 어제 책만 읽은 동생에게 오늘은 쉬라고 했다.

[A] 동생이 어제 책만 읽었다.

(나) 아이가 읽은 책은 동화책이다.

[B] 아이가 책을 읽었다.

(다) 형이 책을 읽은 도서관은 집 근처에 있다.

[C] 형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 ① ㉠ [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우리는 오늘도 만났다.
- ② ㉠ [ 나무로 된 탁자에 동생이 낙서를 하고 있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 ③ ㉡ [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킨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
- ④ ㉡ [ 친구가 나에게 준 옷이 나는 마음에 든다.  
누나는 털실로 짠 장갑도 내게 주었습니다.
- ⑤ ㉢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

1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눌 수 있다.

- 통사적 합성어: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
- ㉠ 비통사적 합성어: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른 합성어

- 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 ② 서로 몰라볼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다.
- ③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지난날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자신감이 생겼다.
- ⑤ 망치질을 자주 하다 보니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였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 처럼 기억·학습·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공 신경망 기술이다.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 인공 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 퍼셉트론은 입력값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고정된 ㉤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과 같은 방식으로 ㉦ 출력값을 내보낸다.

이러한 퍼셉트론은 출력값에 따라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입력값들을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인공 신경망은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에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공 신경망에서 가장 처음에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퍼셉트론들을 입력층, 가장 마지막에 있는 퍼셉트론들을 출력층이라고 한다.

㉧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들 즉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사진에 나타난 특징인 색깔과 형태를 수치화해야 한다.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다음,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를 인공 신경망에 제공한다. 이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에 정답인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하였다면 출력값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하게 된다.

인공 신경망의 작동은 크게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뉜다.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어 주고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한 후,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의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 즉 오차 값을 구한다. 이 오차 값의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관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반복하면 출력값들이 각각의 정답 값에 수렴하게 되고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오차 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 이때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16. 윗글에 따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의 기본 단위이다.
- ② ㉢은 ㉠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 ③ ㉣가 변하면 ㉤도 따라서 변한다.
- ④ ㉥는 ㉦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⑤ ㉠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는 ㉣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퍼셉트론의 출력 단자는 하나이다.
- ② 출력층의 출력값이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같으면 오차 값은 0이다.
- ③ 입력층 퍼셉트론에서 출력된 신호는 다음 계층 퍼셉트론의 입력값이 된다.
- ④ 퍼셉트론은 인간의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의 기능을 수학적 으로 모델링한 것이다.
- ⑤ 가중치의 갱신은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서 출력층의 출력 단자 방향으로 진행된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는 색깔이나 형태가 다른 사과와 사진의 선택하는 것이 좋겠군.
- ② 학습 데이터에 두 가지 범주가 제시되었으므로 입력층의 퍼셉트론은 두 개의 입력 단자를 사용하겠군.
- ③ 색깔에 해당하는 범주와 형태에 해당하는 범주를 분리하여 각각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야 하겠군.
- ④ 가중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면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학습 단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사과 사진의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0으로 설정하였다면,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0 신호가 출력 되면 ‘사과이다’로, 1 신호가 출력되면 ‘사과가 아니다’로 해석 해야 되겠군.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아래의 [A]와 같은 하나의 퍼셉트론을 [B]를 이용해 학습 시키고자 한다.

[A]

- 입력 단자는 세 개(a, b, c)
- a, b, c의 현재의 가중치는 각각  $W_a=0.5$ ,  $W_b=0.5$ ,  $W_c=0.1$
-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으면 0을, 그렇지 않으면 1을 출력

[B]

- a, b, c로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는 각각  $I_a=1$ ,  $I_b=0$ ,  $I_c=1$
-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 정답=1

- ①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판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하겠군.
- ② 이 퍼셉트론이 1을 출력한다면, 가중합이 1보다 작았기 때문 이겠군.
- ③ [B]로 한 번 학습시키고 나면 가중치  $W_a$ ,  $W_b$ ,  $W_c$ 가 모두 늘어나 있겠군.
- ④ [B]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0에 수렴하겠군.
- ⑤ [B]의 학습 데이터를 한 번 입력했을 때 그에 대한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1이겠군.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나)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 실험동물이 ㉡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다)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 한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은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라) 그러나 ㉤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 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 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

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마)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20. (가)~(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에 유비 논증이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③ (다): 동물 실험을 예로 들어 유비 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유비 논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 ⑤ (마):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유비 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살펴보고 있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 ②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 논증에 의해 안다.
- ③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춘다.
- ④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 ⑤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2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면 인과적 메커니즘도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 ② ㉠이 ㉡의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된다.
- ③ ㉡은 ㉠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과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점 중 전자에만 주목한다고 비판한다.
- ④ ㉡은 ㉠과 달리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지 않으면 동물 실험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⑤ ㉡은 ㉠과 달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3. <보기>는 유비 논증의 하나이다. 유비 논증에 대한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골라 알맞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는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다.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개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4.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맡기는    ② 가하는    ③ 주는    ④ 안기는    ⑤ 겪게 하는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宴饗)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를 가리킨다.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에는 민간의 노래가 관여되었다.

민간의 노래가 궁중 잔치의 노래로 사용된 연원은 중국의 오래된 시집인 『시경(詩經)』의 ‘풍(風)’에서 찾을 수 있다.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다.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 잔치에서도 불렸다. 또한 조선의 궁중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향 악곡을 선정하였다.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포함한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구조에서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敎化)하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예법(禮法)과 음악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되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흡수 과정을 통해 상·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A] 關關雎鳩(관관저구)    꾸욱꾸욱 우는 물수리 한 쌍  
在河之洲(재하지주)    하수(河水)의 모래톱에 있다.  
窈窕淑女(요조숙녀)    요조숙녀는  
君子好逑(군자호구)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위의 시는 ‘풍’에 실린 『관저(關雎)』 편 첫째 작품으로 작품의 짜임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하면서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문왕(文王)과 후비(后妃)\*의 덕을 읊은 것, 부부간의 화락(和樂)과 공경(恭敬)을 읊은 것, 풍속 교화의 시초 등 이 노래에 대한 평(評)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노래는 궁중에서 불렀을 때 국가적 차원의 의미까지 담게 될 여지를 갖게 된다.

한편, 고려 속요와 『시경』의 ‘풍’은 공통점이 있지만 고려 속요는 ‘풍’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고려 속요는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악으로 정제되어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기도 했다. 즉 작품의 특정 부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 작품이 구성될 때 ㉠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하였다. 그리고 궁중 연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부분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예컨대, 전체적으로 애뜻한 그리움의 정서를 보이는 작품에 ㉡ 송축의 내용을 담거나 ㉢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를 붙이기도 한다. 『동동』과 『가시리』는 이러한 변화를 비교적 잘 보여 주고 있다.

(나)

덕(德)으란 곰비에 반죽고 복(福)으란 림비에 반죽고  
덕(德)이어 복(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서사>

정월(正月)스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흐논디  
누릿 가온디 나곤 몸하 흐올로 널서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령>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샏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월령>

삼월(三月) 나며 개(開)흐 아으 만춘(滿春) 들윗고지여  
늑밋 브롤 즈슬 디너 나샏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삼월령>  
- 작자 미상, 『동동』 -

(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흐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느는  
선희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논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  
\* 문왕과 후비: 고대의 이상적인 성인 군주와 그의 부인인 태사.

25.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려 속요는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사용되었다.
- ② 『시경』의 ‘풍’은 조선의 궁중악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 ③ 『시경』의 ‘풍’에 실린 노래에는 민중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 ④ 『시경』의 ‘풍’과 고려 속요는 모두 상층 노래가 하층 문화에 영향을 준 결과물이다.
- ⑤ 궁중악에서는 남녀의 사랑이 군신 간의 관계로 확장, 전환되어 해석될 수 있었다.

26. ㉠~㉢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아으 동동다리’는 ㉠의 예로 볼 수 없다.
- ②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 ③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 ④ (다)의 ‘위 증즐가 대평성디’는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 ⑤ (다)의 제1연에서 ‘위 증즐가 대평성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27. (가)를 참고하여 [A], (나),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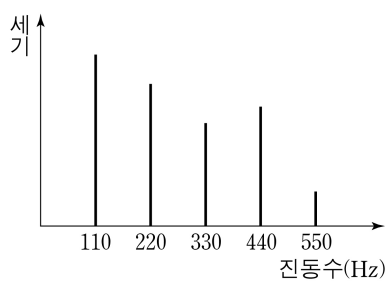
- ① [A]에서는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움이, (나)의 <정월령>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나 있군.
- ② [A]의 ‘물수리 한 쌍’과 (나)의 ‘만춘 들윗꽃’은 생활 속에서 민중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A]에서는 화락의 상황을, (다)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A]에서는 제1행과 제2행이, (다)에서는 제1연과 제2연이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군.
- ⑤ [A]에서는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나)에서는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덕’을, (다)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군.

[28~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이다.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음악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음악 작품은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가 심벌즈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한다. 이 중 전자를 고른음, 후자를 시끄러운음이라고 한다.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지만 시끄러운음은 주기성을 갖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른음을 지칭한다.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때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한다. 진동수가 커지면 음높이 즉, 음고가 높아진다. 고른음 중에서 파형이 사인파인 음파를 단순음이라고 한다. 사인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은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대부분의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사인파보다 복잡한 파형을 갖는데 이런 파형은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복합음이라고 하고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을 부분음이라고 한다.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 하는데 귀는 복합음 속의 부분음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악기가 ㉠ 내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인 음색은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른음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타악기 소리는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소리 스펙트럼은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세로 막대들로 나타나는 반면에 시끄러운음의 소리 스펙트럼에서는 막대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그림>

[A] 두 음이 동시에 울리거나 연이어 울릴 때, 음의 어울림, 즉 협화도는 음정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서 음정이란 두 음의 음고 간의 간격을 말하며 높은 음고의 진동수를 낮은 음고의 진동수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가령, ‘도’와 ‘미’ 사이처럼 장3도 음정은  $5/4$ 이고, ‘도’와 ‘솔’ 사이처럼 완전5도 음정은  $3/2$ 이다. 그러므로 장3도는 완전5도보다 좁은 음정이다. 일반적으로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화도는 작아진다고 본다. 가령, 음정이  $2/1$ 인 옥타브,  $3/2$ 인 완전5도,  $5/4$ 인 장3도,  $6/5$ 인 단3도의 순서로 협화도가 작아진다. 서로 잘 어울리는 두 음의 음정을 협화 음정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음정을 불협화 음정이라고 하는데

16세기의 음악 이론가인 차를리노는 약분된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1, 2, 3, 4, 5, 6으로만 표현되는 음정은 협화 음정, 그 외의 음정은 불협화 음정으로 보았다.

아름다운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연이어 배열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음악은 다양한 음이 조직적으로 연결되고 구성된 형태로, 음악의 매체인 소리가 시간의 진행 속에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음악 평론가인 ㉡ 한슬리크에 따르면,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되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 ㉢ 내는 형식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음악의 가치는 음악이 환기하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음악에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이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리듬, 가락, 화성, 셈여림, 음색 등이 있다. 리듬은 음고 없이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 등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이고, 가락은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이다. 화성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시간적으로 연결된 흐름이고, 셈여림은 음악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소리의 세기이며, 음색은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선택된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 내는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이다.

작곡가는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음악 작품을 만든다. 어떤 음악 작품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인 가락을 그 음악 작품의 주제라고 하는데,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주제로 구현하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해서 음악 작품을 완성한다. 예컨대 조성 음악\*에서는 정해진 박자 내에서 질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리듬이 음표나 쉼표의 진행으로 나타나고, 어떤 조성의 음계 음들을 소재로 한 가락이 나타나고, 주제는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다양한 화성 진행을 통해 반복되고 변화한다. 이렇듯 음악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 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소리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 조성 음악: 으뜸음 ‘도’가 다른 모든 음계 음들을 지배하는 음악으로 17세기 이후 대부분의 서양 음악이 이에 해당한다.

2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리에 대한 감각이 음악 감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있다.
- ② 미적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색과 음악적 탐색을 비교하고 있다.
- ③ 소리를 구분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음악의 형식을 분류하고 있다.
- ④ 음악의 아름다움을 소리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관련지어 탐구하고 있다.
- ⑤ 듣기 좋은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가 음악에서 하는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29. [음악적 요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리듬은 음높이를 가지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으로, 음악에서 질서를 가진 음표나 쉼표의 진행에 활용되는 요소이다.
  - ② 가락은 서로 다른 음높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으로, 음악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요소이다.
  - ③ 화성은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연결된 흐름으로, 음악에서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진행에 활용되는 요소이다.
  - ④ 셈여림은 소리의 세기로, 음악에서 크고 작은 소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 활용되는 요소이다.
  - ⑤ 음색은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으로, 음악에서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악기를 선택하는 데 활용되는 요소이다.

30. 음악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계획들 중, ㉠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 ① 장3도로 기쁨을, 단3도로 슬픔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음악을 만든다.
  - ② 플루트의 청아한 가락으로 상쾌한 아침의 정경을 연상시키는 음악을 만든다.
  - ③ 낮은 음고의 음들을 여러 번 사용하여 내면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악을 만든다.
  - ④ 첫째 음과 둘째 음의 간격이 완전5도가 되는 음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주제가 명확한 음악을 만든다.
  - ⑤ 오페라의 남자 주인공이 화들짝 놀라는 장면에 들어갈 매우 강한 시끄러운음이 울리는 음악을 만든다.

31. 윗글의 <그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그림>은 심벌즈의 소리 스펙트럼이다.
  - ② <그림>에 표현된 복합음의 진동수는 550 Hz로 인식된다.
  - ③ <그림>에 표현된 소리의 부분음 중 기본음의 세기가 가장 크다.
  - ④ <그림>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분음의 세기의 변화를 나타낸다.
  - ⑤ <그림>에서 220 Hz에 해당하는 막대가 사라져도 음색은 변하지 않는다.

32.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바이올린을 연주했을 때 발생하는 네 음 P, Q, R, S의 기본음의 진동수를 측정한 결과가 표와 같았다.

음	P	Q	R	S
기본음의 진동수(Hz)	440	550	660	880

- ① P와 Q 사이의 음정은 장3도이다.
- ② P와 Q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좁다.
- ③ P와 R 사이의 음정은 협화 음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P와 S의 부분음 중에는 진동수가 서로 같은 것이 있다.
- ⑤ P와 S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협화도가 크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과 쓰임이 유사한 것은?

<보 기>

윗글의 ㉠은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여 서술어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은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 용언’ 기능을 한다.

- ① 그 일을 다 해 버리니 속이 시원하다.
- ② 그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 주었다.
- ③ 내일 경기를 위해 잘 먹고 잘 쉬어 뒤라.
- ④ 그는 내일까지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 ⑤ 일을 추진하기 전에 득실을 꼼꼼히 계산해 보고 시작하자.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랫도리 다박술 깔린 산(山) 넘어 큰 산(山) 그 넘엇 산(山)  
안 보이어 내 마음 둥둥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山), 묵중히 엮드린 산(山), 골골이 장송(長松)  
들어섰고, 머루 다랫넝쿨 바위 엉서리에 엮혔고, 살살이 떡갈  
나무 억새풀 우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山)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等),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山), 산(山), 산(山)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  
(沈默)이 흠뻑 지리함즉 하매,

산(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엮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뿔내를 잇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침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 박두진, 「향현(香峴)」 -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별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다)

㉢ 눈은 따뜻하다. 오버를 걸치고 눈길을 걸을 때 이마를  
적시는 함박눈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한다. 작은 산 너머  
거의 눈에 파묻힌 초가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삶의 짙은  
온도를 체험케 한다. 눈이, 함박눈이 쏟아지는 저녁, 잊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이 각별히 그리워지고 마치 두터운 옷 속에 간직  
된 체온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조용히 피어남을  
느낀다. 안부 편지를 쓰고 싶어지고 어디선가 정다운 전화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  
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느낀다.

눈은 조용하다. 사뭇 쏟아지는 함박눈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무한한 이야기를 도란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더욱  
고요하게 한다. 그것은 고요한 가락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교향  
곡이라는 인상을 준다. 특히 어두운 밤중에 창밖으로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면 온 세상 아니 온 우주가  
무한히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하다.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다. 그러기에 고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흐뭇한 내용을  
갖게 한다.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삼 의식하게 되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  
하고 생각하게 된다. 나의 삶, 나의 위치,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그 본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다.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책상 위의 전깃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  
가지지 않는다. 각별한 무슨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 때문이  
아니다. 어느덧 명상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밤 누가  
사색가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철학자로 변하지 않겠  
는가. 무한히 고요하고 거룩할 만큼 순수한 시간이다. 사색이  
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명상에 잠긴다. 눈이 쌓이는 깊은 밤  
혼자 앉아 있는 서재는 사색의 보금자리요, 책상 위에 밝혀  
놓은 램프불은 사색의 꽃이다. 눈 내리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철학가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 박이문, 「눈」 -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구 표현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35.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는 산이 ‘누거만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리함즉  
하’다고 말함으로써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가)의 ‘내 기다려도 좋으랴’와 관련하여 볼 때 ‘화염’이 치밀  
어 오르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겠군.

- ③ (나)에서 ‘만난다면’,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만남이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겠군.
- ④ (가)의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넘었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⑤ (가)의 ‘핏내를 잊은 ~ 즐거이 뛰는 날’은 평화로운 세계를, (나)의 ‘넓고 깨끗한 하늘’은 화자가 ‘그대’와 만나 진정한 합일을 이루려는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물의 결핍감을, ㉡은 불의 충족감을 비유한다.
- ② ㉠은 비의 부정적 의미를, ㉡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 ③ ㉠은 비에 대한 불안감을, ㉡은 소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 ④ ㉠은 물의 생동하는 힘을, ㉡은 불이 소멸하는 상황을 형상화한다.
- ⑤ ㉠은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 ㉡은 하강하는 불의 움직임을 구체화한다.

37. (다)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온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 ② 글쓴이는 ‘눈이 쌓이는 깊은 밤’에 ‘서재’에 앉아 ‘철학자’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눈이 쌓이는 밤’에 체험하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에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떠올리면서 유대감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38. (다)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은 ㉡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따뜻하다’를 사용하여 ‘눈’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서는 글쓴이가 ㉢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와 ㉤를 모두 포함하는 짧은 글을 두 문장으로 지어 봅시다.

- ① 현재는 없다. 지나간 과거와 끝없는 미래만 있을 뿐이다.
- ② 우리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한길을 걷는 영원한 벗이다.
- ③ 시간은 모순이다. 힘겨운 시간은 천천히, 즐거운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 ④ 지식은 차갑다. 지혜의 따뜻함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북돋아 준다.
- ⑤ 자갈밭은 포근하다.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에서 포근함을 느낀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누가 돈 쓰는 것을 아랑곳하랴? 누가 저더러 돈을 쓰라니 걱정인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 뜸하여지며 부친이 씹지를 풀어서 담배를 담는 동안에 상훈이는 나직이 말을 꺼냈다.

“……돈 쓰신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란 말씀입니다.”

“무에 어찌 공연한 일이란 말이나?”

부친의 어기는 좀 낮추어졌다.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질에 오십 원씩으로 매었다 하니 그 오십 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무엇 하자고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삼사천 원은 누가 삼사천 원 썼다던?”

㉠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삼사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이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 조씨로 무후(無後)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죽에 끼려 한즉 군식구가 늘면 양반에 진국이 물어

[A]

질까 보아 반대를 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그 입들을 씻기기 위하여 쓴 것이다. 하기 때문에 난봉자식이 난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천 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중간의 협잡배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이 영감으로서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 해 보기는 처음이다.

“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하자 유구무언(在下者 有口無言)’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나?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 놓고 말았다.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게진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조 의관(덕기의 조부)이 죽고, 덕기가 재산 상속자가 된다. 조 의관의 유산 목록에 정미소가 없었다는 것을 안 상훈은 정미소를 차지하려고 한다. 한편 상훈은 세간 값을 적은 종이들을 덕기에게 보내 값을 치르라고 한다.

“어제 그건 봤니?”

부친이 비로소 말을 붙이나 아들은 다음 말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았다.

“치를 수 없거든 거기 두고 가거라.”

역정스러운 목소리나 여자 손들이 많은데 구차스럽게 세간 값으로 부자 충돌을 하는 꼴을 보이기 싫기 때문에 ㉡ 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안 치러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덕기는 너무 오래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말부리만 따고 또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았다. 그러나 복통이 터져서 속은 끓었다. 속에 있는 말이나 시원스럽게 하고 싶으나 부친 앞에서, 더구나 조인광좌(稠人廣座)\* 중에서 그럴 수도 없다.

“이 판에 용이 이렇게 과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간한 세간 나부랭이야 저 집에 안 쓰고 굴리는 것만 갖다 놓으셔도 넉넉할 게 아닙니까?”

안방 치장 하나에 천여 원 돈을 묶어서 들인다는 것은 생돈 잡아먹는 것 같고, 누가 치르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다.

“이 판이 무슨 판이란 말이나? 그 따위 아니꼬운 소리 할 테거든 그거 내놓고 어서 가거라. 안 쓰고 굴리는 세간은 너나 쓰렴!”

영감은 자식에게라도 좀 점해서\* 그런지 화만 버럭버럭 내고 호령이다.

[B]

“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 쓰신다고 반대하시던 걸 생각 하시기로…….”

“무어 어째? 널더러 먹여 살리라니? 걱정 마라. 아니꼽게 네가 무슨 총찰이나? 그러나 정미소 장부는 이따라도 내게로 보내라.”

부친은 이 말을 하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었다.

“정미소 아니라 모두 내놓으려셔도 못 드릴 것은 아님 니다마는, 늘 이렇게만 하시면야 어디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있고 없고 간에, 내 거는 내가 찾는 게 아니냐?”

“왜 그렇게 말씀올 하셔요. 제게 두시면 어디 갑니까?”

“이놈 불한당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돈 천도 못 되는 것을 치러 줄 수 없다는 놈이 무어 어째?”

부친은 신경질이 일어났는지 별안간 달려들더니 주먹으로 뺨을 갈기려는 것을 덕기가 벌떡 일어서니까 주먹이 어깨에 맞았다. 병적인지 벌써 망녕인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흥분 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고 마루로 피해 나와 버렸다. 그러나 금시로 정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속에 앉은 부친은 딴 세상 사람같이 생각이 들었다. ㉠ 신앙을 잃어 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히고 보면야, 생활이 거칠어 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동정 도 하는 한편인데,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가면을 벗어 버리고 파탈하고 나서는 것도 오히려 나은 일이라고도 하겠으나, 노래(老來)에 이렇게도 생활이 타락하여 갈까 하고, 덕기는 부친에게 반항하기보다도 다만 혼자 탄식을 하는 것이었다.

- 염상섭, 「삼대」 -

\* 조인광좌: 여러 사람이 뻥뻥하게 많이 모인 자리.

\* 점해서: 부끄럽고 미안해서.

3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훈의 부친은 족보를 만드는 데에 ‘한 천 원’이 들었다며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 ② 상훈의 부친은 상훈이 ‘오륙천 원’을 학교에 ‘디밀’었던 것은 돈을 ‘유리하게’ 쓴 것이 아니라고 본다.
- ③ 상훈은 자신의 부친이 ‘산소’에 ‘돈’을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 ④ 덕기는 ‘세간 값’으로 치러야 하는 돈을 낭비라고 생각한다.
- ⑤ 덕기는 집안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미소 장부’를 내놓지 않으려 한다.

40. 윗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들에게 말을 돌려서 하려는 것이다.
- ②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표시하려는 것이다.
- ③ 아들과 자신의 의견을 같게 하려는 것이다.
- ④ 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참으려는 것이다.
- ⑤ 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다.

41. [A], [B]에서 각각 드러나는 부자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와 달리 [A]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치부를 들추어내며 책망한다.
- ② [A]와 달리 [B]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동정한다.
- ③ [A]와 달리 [B]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들의 탓으로 돌린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간섭을 못마땅해한다.
- ⑤ [A]와 [B] 모두에서 아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아버지의 행위를 문제 삼는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과 ㉡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삼대」의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한다. 이때 그 특정 인물은 장면에 따라 선택되며,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 준다.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서술자는 특정 인물이 지닌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복합적으로 드러낸다.



- ①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영감에서 아들로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덕기로 고정되어 있다.
- ②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의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에서는 덕기가 포착한 상훈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난다.
- ③ ㉠에서는 영감의, ㉡에서는 덕기의 시각에서 서술 대상인 상훈을 낮게 평가하며 그와의 심리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가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덕기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 ⑤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영감의 성격이,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덕기와 서술 대상인 상훈의 성격이 드러난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경자년(庚子年, 1600년) 늦봄, 최척(崔陟)은 주우(朱佑)\*와 함께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차(茶)를 팔다가 마침내 안남\*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일본인 상선(商船) 10여 척도 강어귀에 정박하여 10여 일을 함께 머물게 되었다.

날짜는 어느덧 4월 보름이 되어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물은 비단결처럼 빛났으며, 바람이 불지 않아 물결 또한 잔잔하였다. 이날 밤이 장차 깊어 가면서 밝은 달이 강에 비치고 열은 안개가 물 위에 어리었으며, 뱃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고 물새만이 간간이 울고 있었다. 이때 문득 일본인 배 안에서 염불하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뻠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신체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즉시 행장에서 피리를 꺼내 몇 곡을 불어서 가슴속에 맺힌 회한을 풀었다. 때마침 바다와 하늘은 고요하고 구름과 안개가 걷히니, 애절한 가락과 그윽한 호느낌이 피리 소리에 뒤섞이어 맑게 퍼져 나갔다. 이에 수많은 뱃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으며, 그들은 처연하게 앉아 피리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격분해서 머리가 곤추선 사람도 피리 소리에 분을 가라앉힐 정도였다.

잠시 후에 일본인 배 안에서 조선말로 칠언절구(七言絶句)를 읊었다.

왕자진\*의 피리 소리에 달마저 떨어지려 하는데, [王子吹簫月欲底]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만 서늘하구나. [碧天如海露凄凄]

시를 읊는 소리는 처절하여 마치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 하였다. 시를 다 읊더니, 그 사람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최척은 그 시를 듣고 크게 놀라서 피리를 땅에 떨어뜨린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이를 보고 주우가 말했다.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있는가?”

최척은 대답을 하고 싶었으나 목이 메고 눈물이 떨어져 말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최척은 기운을 차려 말했다.

“조금 전에 저 배 안에서 들려왔던 시구는 바로 내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라네. 다른 사람은 평생 저 시를 들어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일세. 게다가 시를 읊는 소리마저 내 아내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 절로 마음이 슬퍼진 것이라네. 하지만 어떻게 내 아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배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어서 온 가족이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말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비탄에 젖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가운데는 두홍(杜洪)\*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맹한 장정이었다. 그는 최척의 말을 듣더니, 얼굴에 의기를 띠고 주먹으로 노를 치면서 분연히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오겠소.”

주우가 저지하며 말했다.

“깊은 밤에 시끄럽게 굴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까 두렵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물어보아도 늦지 않을 것일세.”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그렇시다.”

최척은 앓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동방이 밝아 오자, 즉시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에 시를 읊었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옥영(玉英)도 어젯밤에 들려왔던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에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여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저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하게 뛰어나와 최척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바라보고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저잣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하였는데, 처음에는 단지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마다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옥영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으며 말했다.

“산 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그때 아버님과 장모님은 어떻게 되었소?”

옥영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주우는 돈우(頓于)\*를 만나 백금 세 덩이를 주고 옥영을 사서 데려 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돈우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이제 4년 되었는데, 그의 단정하고 고운 마음씨를 사랑하여 친자식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침식을 함께하는 등 잠시도 떨어질 적이 없었으나, 지금까지 그가 아낙네인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직접 겪고

보니, 이는 천지신명도 오히려 감동할 일입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무디기는 하지만 진실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마 어떻게 그를 팔아서 먹고살 수 있겠습니까?”

돈우는 즉시 주머니 속에서 은자(銀子) 10냥을 꺼내어 전별금(錢別金)으로 주면서 말했다.

“4년을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니, 슬픈 마음에 가슴이 저리기만 하오. 온갖 고생 끝에 살아남아 다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며, 이 세상에는 없었던 일일 것이오. 내가 그대를 막는다면 하늘이 반드시 나를 미워할 것이오. 사우(沙于)\*여! 사우여! 잘 가지게! 잘 가지게!”

- 조위한, 『최척전(崔陟傳)』 -

\* 주우, 두홍: 최척과 함께 장사를 하는 중국인들.

\* 안남: 베트남.

\* 왕자진: 주나라 영왕의 태자로, 죄를 입어 서인이 되었음.

\* 돈우: 옥영을 데리고 장사를 하는 일본인.

\* 사우: 돈우가 옥영에게 붙여 준 이름.

43. 최척과 옥영의 재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국에서 만난 동포의 도움을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 ② 두 인물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 ③ 두 인물이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자비로 인해 이루어진다.
- ④ 주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다가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
- ⑤ 주변 인물들 중 대다수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일부에게는 의구심을 유발한다.

44. 윗글의 ‘밤’과 ‘아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밤은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고, 아침은 주인공이 현실적 문제와 대결하는 시간이다.
- ② 밤은 운명과의 대결을 통해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고, 아침은 조력자의 등장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 ③ 밤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계획이 구상되고, 아침은 개방적인 공간에서 그 계획을 실행할지 논의하는 시간이다.
- ④ 밤은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아침은 그 내면적 갈등이 새로운 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시간이다.
- ⑤ 밤은 주인공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서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아침은 극적 장면이 펼쳐지면서 그 긴장이 해소되는 시간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임진왜란(1592~1598년) 등 16세기 말~17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전쟁들은 각국 백성들의 삶에 심대한 수난을 초래했다. 이러한 역사를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이 조위한의 『최척전』이다. 최척에게서 체험의 전말을 전해 듣고 이 작품을 썼다는 후기로 보면 이 작품이 실제 체험에 바탕을 둔 인물들의 이산(離散)과 귀향의 과정을 그린 유랑의 서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사 공간이 조선을 포함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에 걸쳐 있고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서 개인 간의 인간적 배려 및 전쟁의 참상에 대해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① ‘경자년’, ‘4년’ 등은 최척과 옥영이 겪어야 했던 전란과 유랑 체험이 역사적 실제성을 지닌 것임을 알려 주는군.
- ② 처절하게 시를 읊고 한숨까지 내쉬는 것은 시가 옥영 자신의 이산과 유랑 체험을 계기로 지어진 것임을 알려 주는군.
- ③ ‘조선말’, ‘조선의 곡조’ 등이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최척 부부의 재회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겠군.
- ④ 최척 가족의 이산의 사연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눈물 흘린 것은 전쟁의 참상에 대한 인류애적인 연민을 보여 준 사례이겠군.
- ⑤ 돈우가 백금을 받고 옥영을 파는 대신 오히려 옥영에게 전별금을 주며 안타까이 보낸 것은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서 인간적 배려를 보여 주는 사례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